

◎ 제지업종, B2B 전자상거래 확산

한솔제지, 무림제지, 신무림제지, 세림제지, 한창제지 등 5개 주요 제지사들이 지난 5월부터 B2B e마켓플레이스에서 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결제는 신용보증기금의 B2B전자보증시스템에 기반한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는 등 판매에 이은 결제 프로세스를 온라인 상에 구현키로 했다. 따라서 한솔제지 등 주요 제지사들은 산자부 B2B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제지전문 e마켓플레이스인 '페이퍼 마켓플레이스(www.papermarketplace.co.kr)'를 통해 온라인 주문과 배송, 결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제지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업체들은 페이퍼 마켓플레이스에 접속, 판매기업 기간시스템으로 들어가 원하는 제품의 재고상황 등을 파악한 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된다. 산업자원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제지업종 주관기관인 한국제지공업연합회는 이를 통해 제지사들은 온라인 주문에 대해 자사 재고상황과 생산계획을 고려해 출하예정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결제는 신용보증기금의 B2B 전자보증시스템을 기본으로 해 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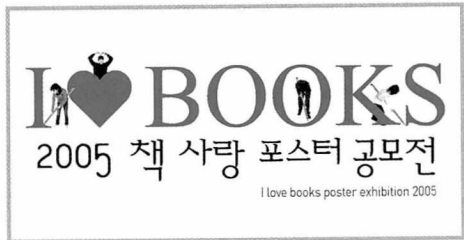
◎ 한솔제지, 신뢰기업 대상 2년 연속 수상



한솔제지가 지난 5월12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한 '2005년 신뢰기업대상'에 선정됐다. 이 상은 매출규모 품질인증 등을 기준으로 200개 기업을 선정한 후 지난 3월30일부터 4월12일까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40개사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한솔제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신뢰기업으로 선정됐다. 응답자들은 제품(서비스), 소비자보호, 투명한 정보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이미지 등 5개항에 대해 점수를 매겼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광고메시지, 경영지표, 경영자에 대한 포괄적 신뢰도를 평가했다. 소비자 신뢰기업으로 선정된 40개 기업은 5점 만점에 3.45점 이상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대체로 제품(서비스), 소비자보호, 정보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줬으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기업의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인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강화에 힘쓰는 기업에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솔제지, 책 사랑 포스터 공모전 협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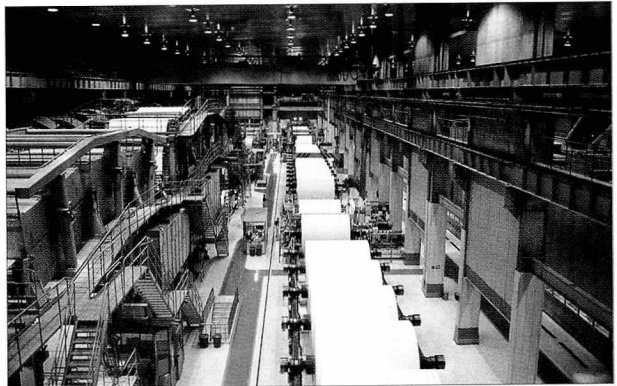
한솔제지는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와 (주)지학사가 공동 주최하고 (주)지학사가 주관하는



2005 책 사랑 포스터 공모전을 협찬한다.

공모전의 주제는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을 찾아서'이며 손으로 직접 그렸거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컬러 출력물 또는 인쇄 교정지 등에 표현한 독서 권장 포스터를 초·중·고 재학생과 대학생·일반인 부문으로 나눠 공모전을 진행한다. 지난 5월26일부터 28일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를 받은 이번 공모전의 심사결과는 오는 6월15일 지학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고 금상 2명(상장 및 상금 각 50만 원), 은상 3명(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동상 6명(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입선 다수(상장 및 부상)의 초·중·고 부문과 금상 2명(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은상 3명(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동상 5명(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입선 다수(상장 및 부상)의 대학·일반 부문으로 나눠 시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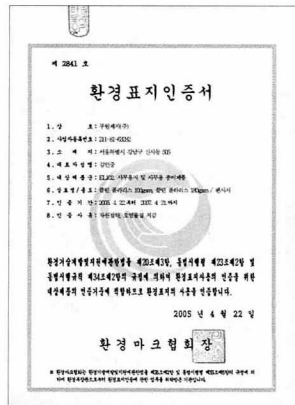
◎ 신무림제지, 고객사 초청 공장 투어 실시



신무림제지는 지난 4월23일 주요 고객사 중 한 곳인 페이퍼플라자를 초청해 공장 투어 행사를 가졌다. 페이퍼플라자 임원 및 담당 과장은 이번 공장투어를 통해 신무림제지 진주공장에 대한 소개를 듣고 종이 제조과정을 둘러보았으며 제품 품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신무림제지는 이날 주고받은 내용 중 반절 제품 판매 확대를 약속하는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페이퍼플라자 송채건 전무는 "진주공장 방문을 통해 신무림제지의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 등을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금년 가을쯤 페이퍼플라자 고객을 초청해 다시 한번 진주공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신무림제지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공장 투어를 장기적인 고객 만족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키로 했다.

◎ 무림제지, 폴라리스 환경마크 인증 획득

지난해 출시한 무림제지의 고급 팬시지 폴라리스(Polaris)가 최근 환경마크협회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클린폴라리스(Clean Polaris)로 옷을 갈아입게 된 폴라리스는 펄지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한지의 장식성을 모두 가진 신개념의 펄지로서 무림제지의 반세기 역사를 통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로 인해 제품 출시와 함께 고급 카드와 카탈로그,



리플렛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무림제지는 폴라리스와 함께 박리지도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다. 무림제지에서 생산하는 그린 박리지는 실리콘의 원지 내 침투를 막기 위한 P.E. 코팅 없이도 실리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코팅 처리를 한 친환경 용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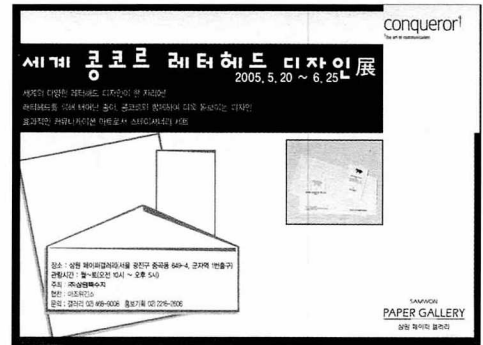
◎ JP모건, 미국 종이 · 판지 수출입 증가

JP모건은 최근 미국 주요 종이 판지 생산 업체들이 발표한 2월 수출입 통계자료를 분석, 미국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5% 증가하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 또한 4% 늘어나 9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JP모건은 2004년 약 10만톤의 아트지 물량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이제까지는 이 물량이 아트지가 아닌 특수지로 잘못 포함되어 발표되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중국 물량으로 인한 미국 아트지 시장 수급 균형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2004년 미국의 중국산 아트지 수입은 3만2천톤으로 집계되었으나 조사결과 무려 14만8천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미국 수입통계에 따르면 신문용지 수입은 전년 대비 9% 감소했으나 도공지 수입이 15% 늘어나 신문용지, 도공지, 비도공지 총 수입은 5% 늘어났다.

◎ APP차이나, 펄프 판매 개시

APP차이나의 하이난섬 펄프 설비에서 생산되는 유칼리투스 펄프가 중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5월 출하 수주 물량의 펄프 가격은 17%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톤당 664달러 선으로 브라질산 유칼리투스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산 100만톤으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펄프 라인인 하이난섬 설비는 Aker Kvaerner사가 설비 공급을 맡았으며 건조라인과 목재칩 처리 설비는 Andritz에서 담당했다. Andritz사 관계자에 따르면 건조라인의 처리규모는 1일 2766톤으로 기존 세계 최대였던 브라질 Aracruz의 2756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PP차이나 관계자는 5월중에 약 7만5천톤 규모의 펄프 생산이 이뤄졌으며 이중 30%정도가 중국 시장에 판매된다고 밝혔다.

◎ 삼원페이퍼, 세계 콩코르 레터헤드디자인전



지난 5월20일에 시작한 '세계 콩코르 레터헤드 디자인전' 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삼원 페이퍼갤러리에서 오는 6월25일까지 개최된다. 레터헤드란 편지의 머리에 인쇄된 기업명이나 연락처, 마크 등을 일컫는데 이러한 레터헤드가 인쇄된 편지 자체를 칭하기도 한다.

전시되는 작품은 일본의 야마토사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주최한 기업 스테이셔너리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들로서 실존기업이나 단체 또는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로고 디자인을 스테이셔너리 세트에 적용한 작품들이다. 스테이셔너리 세트란 레터헤드, 명함, 편지봉투 등의 총칭으로 레터헤드뿐만 아니라 세트 전체에 일관된 로고나 마크, 이미지 등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모전 수상작 외에도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 15개국에서 제작된 기업 또는 단체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셔너리 세트 등도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스테이셔너리 세트는 모두 영국 아조워킨스사 콩코르(CONQUEROR)를 사용했다. 콩코르는 1889년 영국산 종이로서 고유의 워터마크로 신용과 품격을 자랑하며 현재 세계 100여 개국에서 레터헤드 용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카이시스, 친환경 포장재 개발

청사진, 디지털 도면복사기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이시스(대표 최상규)는 최근 수용성 코팅재질을 활용한 친환경포장재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친환경 포장재는 카이시스가 자체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친환경 수용성 코팅재질로 만들어 가열을 해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0% 재활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종이재질 코팅 포장재는 일반 포장지와 종이컵, 식품 접시, 식품 용기, 크라프트지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제품이 종이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위에 'PE(폴리에틸렌)'나 '비닐' 등의 성분이 코팅돼 있어 사용 후, 종이로 재활용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일반 종이로 재활용 되지 못하고 소각 처리되면서 심각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카이시스가 개발한 '친환경 수용성 코팅재질'은 '해리(종이를 잘게 썰는 과정) 하는 과정'에서 물에 녹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펄프를 활용해 일반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다.